

우리 당출판보도물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발표 40 퉁에 즈음하여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굳건한 붓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심장에 새기고 붓과 마이를 총대마냥 세계를 둘러싼 선군조선의 기자, 언론인들이 높이 올려가는 붓대로, 포성이 강성국가건설전투장들에 승리의 진군가로 메아리치고있다.

이 자랑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일찍이 붓대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자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순회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주체혁명의 출판보도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었으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5월 7일 로작을 발표하시 때로부터 이느덧 세월은 흘러 40년.

그 나날은 주체적출판보도물이 틀어쥐고나가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시여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투쟁과 전진, 승리와 번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전진이 이룩된 1970년대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멸의 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성격과 기본사명을 천명하시고 주체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삼고 당의 령도체계를 틀튼히 세우며 중자를 바로 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출판보도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비약적 단계로 그 위력으로 투쟁과 전진, 승리의 력사를 영원히 빛내시려는 그의 열렬한 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도 로작의 자자구구를 되새길수록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빛발쳐온다.

온 나라의 일들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출판보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리시었다. 특히 출판보도선전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시여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혁명적정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해나간다는 고귀한 결정을 내리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가 진행되던 그즈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낮에는 회의에 참가하시고 밤에는 또 다음날회의준비를 지도하시며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하시며 그리고는 밤을 새우시고는 다음날 아침에 헌신하시였다. 품처럼 시간을 내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본선 초교지를 전회회의장에까지 가지고 가시어 보아주시였고 그러시고는 시간이 모자라 잠실시간까지 지내시여 완성시켜주시였다. 이때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제 6차대회를 준비하시던 나날에도 이른 새벽부터 잠실시간이 지나도록 여러 대강들을 지도하시고 저녁에는 조선중앙통신사를 찾으신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당대회때에는 대회장에서 회차 통신보도와 관련한 지도를 주신 회차를 우리 당출판보도물로서 이 혁명적 새겨주었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수령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으로 판공되고 기성의 판공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우리 식의 새롭고 참신한 방법과 활동방식이 확립된 그 모든 전진의 기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놓여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붓대중시사상과 정력으로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강성국가건설전투장에 우리 당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자신께서는 언제나 붓대를 중시한다고 하시며 우리 기자, 편집원들을 글쓰는 친구들이라고 믿고 그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영방의 단상에서 같이 세우신 진실같은 사랑과 믿음의 화복들은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보의 한 문헌이 쓴 정론을 보아주시고 정론이 정말 힘이 있다고, 최고결자라고, 멋진반의 식량과 닮았는 위력한 글이라고 두고두고 치하시며 그에게 주시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사를 다 배워주시는 이야기는 오늘도 문필가들에게 인자하신 사랑과 믿음의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그 무엇보다도 생각해보자면 문필가들을 생각하시도 쉬없이 해치시는 전진결, 현지지도의 길에서 더 글감과 중자를 찾아주시고 미흡한 글들을 건진여 보아주시며 친히 수정가림을 하시어 이버이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이 땅의 문필가들과 인민들을 영원히 찾으신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에서 사설혁명을 일으키던 때를 추억하시며 이버이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당보기자들은 당의 이 목구비라고 하시면서 당은 기자들을 통하여 당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기자들을 통하여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교시하시

었다고,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보기자들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의도를 옮겨 반영한 글은 단순히 글재주에 의하여 나오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기자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그렇기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것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언연하시였다.

기자가, 언론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라고 믿고 그 언연한 시련과 난관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당의 립장은 앞으로 변함이 없을것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신념의 붓대, 애국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당을 붓대로 결사옹위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문필가 활동을 힘있게 벌여오셨다.

지나온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붓대중시사상과 령도가 빛나게 구현되어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의 천하대지는 한데 갈라져서 천백배로 다져지고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나고있다.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더욱 강화발전된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또 한번의 위대한 승승이시며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자기 발전의 최종정기를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적무기로 최우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구절구절이 천만인의 심장마다

에 거세찬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출판보도선전에서 당의 유일적정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일군들의 사상관념과 사업방법, 일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서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철학적으로 있는 기사와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근본적로, 당정책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기 위한 방도도 다 밝혀주시였다.

사상일군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악성과 추악한 정체를 날랄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인 진, 전과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원수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사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시며 원수님들께서는 가라치심은 만사들의 심금을 세차례 격동시키시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우승리를 앞당겨올리고 한 걸음 앞을 내딛는 양에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당의 붓대전사들과 인민들은 또 한번의 결승한 위업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환희를 베풀고 절감하고있다.

천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의 붓대는 굳건하다!

바로 이것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선전자의 기자, 언론인들이 다스림 심장같이 다진 혁명의 신념이다.

그렇다.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선군조선의 붓대는 굳건하며 우리의 정치사상선지는 금성철벽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

로동신문사주대에는 푸른 나무를 배개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필비가 정중히 세워져 있다.

천필비에는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신문은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옹위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필비 새겨져 있다.

언제나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중앙을 옹위하는 길에서

당사상선전의 전초병

지난 세기 1990년대 조선중앙통신사집단의 신념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이며 당사상선전의 전초병들인 중앙통신사동지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겠다는 굳은 결의에 대하여 당중앙은 만측으로 격려하시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필서한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조선의 기상 자랑스럽게, 몇몇하게, 힘차게

방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력사의 그날로부터 흘러온 지난 40년간은 백두산위인들께서 우리의 방송을 명실공히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주시지 못할 날이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몇몇하게, 힘차게 언 반방에 소리높이 울려떨어지게 하라는 믿음어린 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 당사상선전의 전초병! 여기에는 조선중앙통신사 나가갈 길을 한히 밝혀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어려여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현대적인 통신설비들을 갖춘 갖춘 당과 정부의 믿음직한 기관관으로, 위력한 국제적인 통신사로 자랑떨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필서한을 받아안은것은 마키로 주체혁명위업을 충실히 옹위하고 받아들인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이른새벽 문필가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의 힘에 담겨있습니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하기 위하여서는 붓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체 54 (1965)년 4월 어느날 새벽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이 새는술도 모르고 정력적으로 창작투쟁을 벌리고있는 문필가들을 찾으시였다. 사람들이 아직도 단잠에 들어있을 이른새벽 자각들의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게 된 문필가들은 물들바를 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밤을 새워 글을 쓰시라고 피관하지 않다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자신께서 바치시는 로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문필가들은 피곤하지 않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상 밤을 새우는데 피곤하지 않겠는다고 하시며 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내 세워주시고 좋은 글을 쓰자면 현지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섹터들 식로들이 생겨나고 우리 기자, 편집원들의 마음을 항일의 그 나날에도 담요처럼 건넰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항일의 불길같은 힘찬 줄을 울려떨어뜨리시며 우리의 인민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에 장기로 바치는 거지에서 들도 없는 행복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찍이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모습을 마련하시였다.

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대를 못 잊어하셨으며 그대 무순정적으로 그 이름을 다 써냈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잊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데 그때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장기로 바치는 거지에서 들도 없는 행복을 누리고 회고하시였다.

력사적인 5월 7일 로작이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아매마다 나는 수심전전의 감격이 소중히 되새겨져 격정에 젖곤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는 길에 따라 우리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이 출판보도혁명을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청춘의 열정과 깃배이 움츠들지 않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이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준비되는것이다.》

당시 또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사설혁명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찍이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모습을 마련하시였다.

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대를 못 잊어하셨으며 그대 무순정적으로 그 이름을 다 써냈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잊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데 그때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장기로 바치는 거지에서 들도 없는 행복을 누리고 회고하시였다.

력사적인 5월 7일 로작이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아매마다 나는 수심전전의 감격이 소중히 되새겨져 격정에 젖곤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는 길에 따라 우리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이 출판보도혁명을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청춘의 열정과 깃배이 움츠들지 않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이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준비되는것이다.》

당시 또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사설혁명

역사의 그날을 맞을 때면

대오로 자랑떨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 나날에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시는 편지를 받고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정의 열정을 불태워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을 언젠가 마음속에 안고있었기에 모를것도 없었고 가야 할 길도 명했었으며 붓대의 집중모화, 면속회화는 백발백중밖에 몰랐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거듭 안겨주시고 자기마찬가지로 남들과 똑같이 허리띠를 조여 나눌라 투쟁하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자애로운 이버이,

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시를 창조하게 한 우리 당의 사상선지를 굳건히 이수할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스승의 사랑과 믿음, 세심한 지도속에 당보의 핵폭탄이나 몇몇만의 식량에도 대비할수 없는 무한한 위력을 떨쳐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당의 사상일군들 한사람한 사람이 다 원수님이 한계 시간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장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있다.

또 한번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력사에 류례없이 없던 혁명을 일으키시고 기자, 언론인들을 사회주의사상선지를 철벽으로 수호하는 당중앙을 키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명남, 김종훈 씌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파페말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파페말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페말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사상선전의 전초선을 여척같이 지켜갈 열의에 넘쳐있는 기자, 언론인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민주조선사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김종훈 씌움

나라의 곳곳에서 우수한 선수후비들이 자란다

체육강자들을 키워낼 높은 목표를 안고

우리 교장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수상자, 세계선수권보유자가 나오게 하자. 이것은 내국에서 내세운 또 하나의 목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발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선수후비육성사업에 힘을 넣어 곳곳에서 우수한 선수후비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는것입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대안 구역에서 높이 받들어 대안구역의 책임 일꾼들을 비롯한 구역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이 적극 앞장서고 종목별후원단체들도 한결같이 따라나선 가운데 청소년체육학교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화폭들을 연이어 펼쳐놓고있으며 선수후비육성사업의 새로운 전진을 적극 고무추진하고 있다.

에 실어주며 맑은 일이 바빠가지 못하니 동무가 가지고 넘어주고 경기도 보아 주며 힘을 주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었다는 구역의 책임 일꾼에 대한 이야기 전례 들을 들을 때 청소년체육학교 일꾼들과 지도교원, 학생들 모두가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그대로 하루빨리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이는 체육강자들로 자라게 하는 고향땅의 당부로서 학생들의 뼈마디에 깊이 새겨졌다. 지도교원, 학생들의 열의는 더욱 앙양되었고 녀자축구, 권투, 남자축구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대안 구역에서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고 그것을 훌륭히 꾸리려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 더욱 높아가는 지원열의

가동성적 합수 있게 하는 공사도 적극적으로 내밀어준 구역책임일꾼들의 불같은 열정, 맑은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나라의 체육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데 바쳐가는 그들 뜨거운 진정속에 학교에는 교수후원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끌어올릴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종목별후원단체들에서도 훈련과 경기보장에 이르기까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갔고있으며 일꾼들이 직접 학교건물구리공사현장에 나와 실례를 료해하고 지원사업에 힘을 들여 사무실, 휴게실 등이 환하게 꾸러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렇듯 뜨거운 애국열풍, 지원열풍에 받들어 학교에서는 훈련비지도의 더욱 세계화위풍이 일고있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려명의 학생들이 체육단으로 선발되었다. 그리고그런데 이 못 대안당에서도 누리에 랑호성공화국을 펼칠 희망의 열풍이 불고있다. 당의 의도를 받들어 투철한 열의와 교수후원지도의 과학화수준을 증진하여 내내는데 힘입은 실비비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체육정보수집을

뜻밖의 비상소집

지난해 10월 시적으로 진행된 기술혁신경매였다. 수시로 떨어져있는 남포시의 소재지에 지도교원, 학생들과 함께 나가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경기보장에 전념하고있는 대안구역청소년체육학교 교장 김영국동무에게 뜻밖의 구역당의 한 일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은 꼭 때지 두마리와 물기루, 닭알을 비롯한 많은 후원물자들을 싣고나가 즉시 내거기를 준비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이미 구역에서 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 학생들의 경기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오직 경기보장을 생각하고있던 참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얼마후 시간이 흘러 구역당 일꾼이 그 많은 물자들을

비상소집

차에 싣고오고 교장은 필요한 성원들을 비상소집할수밖에 없었다. 인민들과 일꾼들의 성의가 담긴 많은 후원물자들을 차에 싣고오고 교장은 필요한 성원들을 비상소집할수밖에 없었다. 인민들과 일꾼들의 성의가 담긴 많은 후원물자들을 차

한주일에 네차례의 협의회를

지금 대안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새로 받은 3층짜리 건물에 대한 구리공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반과목 수업과제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청소년체육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데 이 공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학교가 이런 큰 건물을 쓰게 된대도 구역 일꾼들의 적극적인 일본생애안반침되어있다. 청소년체육학교의 전담적인 발전에 걸실히 필요한 건물문제를 풀기 위해 일꾼들은 구역안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토론도 진지하게 하면서 방도를 모색하였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체육학교의 건물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합리적으로 풀어줄것인가. 대안구역연립기업소에서 진행된 대상실비생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일감들을 안고 드라베 뛰는 속에서 구역일꾼들이 이 한가지 인간을 가지고 진행한 협의회만도 한주일에 네차례나 되었다. 마침내 청소년체육학교에 3층짜리 건물을 넘겨줄때

0.05초에 비긴 불같은 탐구사색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 오성진동무

0.05초에 비긴 불같은 탐구사색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 오성진동무

독자의 편지

이런 교육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계조상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고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건설사업에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지구 당조직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대안지구에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하자는 것을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세포도관들을 개간할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보람찬 애국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갔다. 현장에 찾아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실례를 료해한 책임 일꾼들은 지도교원-학생-학생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통해 크게 지원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 사업에 종업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 나간다고 하기 위한 사업을 당 조직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

갔다. 이에 고무된 지도국인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3월 건설에 필요한 대형화물자동차 2대, 종합도양관리기계 1대, 목재 50m, 풀씨 80kg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외교단사업총국 당조직에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한 마음을 다 바쳐나가도록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꾼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나가 제기되는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밖에도 내각정적국, 김일성김정일기념위원회, 외부무성,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농업성, 무역성, 료해운성, 보건성, 립업성, 도시경영상, 관광사지도국, 대중지도국, 인민봉사총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책임일꾼들과 도, 시, 군당 책임일꾼들이 건설용자와 후원물자들을 가지고 전투현장에 찾아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떨쳐나갈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주었다.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은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층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지원열풍을 세게 일으키고있다. 하여 지난 3월 많은 지원물자와 함께 선전선동수단들을 보내주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떨쳐나갈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종업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 나간다고 하기 위한 사업을 당 조직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책임일꾼들이 앞장서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을 웅대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이들은 세멘트 200t, 화확비 10t, 비닐막 2만 5000m, 작업공구 100여점, 500명분의 솜옷, 신발, 장화, 비옷, 속내의 등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가있다. 공장, 농업을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 가정식도 알려주면서 벌린 일꾼들의 화선적정치사업은 돌격대원들의 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이밖에도 내각정적국, 김일성김정일기념위원회, 외부무성,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농업성, 무역성, 료해운성, 보건성, 립업성, 도시경영상, 관광사지도국, 대중지도국, 인민봉사총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책임일꾼들과 도, 시, 군당 책임일꾼들이 건설용자와 후원물자들을 가지고 전투현장에 찾아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떨쳐나갈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종업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 나간다고 하기 위한 사업을 당 조직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었다.

우리 군대가 부여준혈육의 정

조선인민군 김광을소속구분대 군인들

우리 병사들이 인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붉은별과 함께 비석이 새겨진 군모의 모표를 빛내이며 인민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병사들의 맑은 위훈이 말해준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정으로 고동치는 병사들의 심장, 그 심장속에 인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병사들의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은 대성구역 립업동 27인민반의 한 가정에도 뜨겁게 깃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군인대단계를 실현하는데서 주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6일 오후였다. 대성구역 청초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최은미학생과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사는 집으로 여려명의 인민군관들이 들어왔다. 조선인민군 김광을소속구분대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방바닥도 짚어보고 찬장도 열어도 보지 않은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날 아침 여려전에 부모를 잃은 최은미학생과 그의 동생들에 대하여 우연히 알게 된 군관 백문일동무의 생각이 흘렀다. 여느때와 같지만 표정을 짓고있는 그를 바라보던 군관 차정길

조선인민군 김광을소속구분대 군인들

동무가 사연을 물었다. 백문일동무는 최은미학생과 그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 애들두 우리가 한복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귀중한 인민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할 친혈육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대로 그 애들의 가슴속에 자기마한 두근거림을 심어주어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정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백문일동무와 군관들이 최은미학생과 그의 동생들이 살고있는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최은미, 최금성, 최금성 학생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다음날부터 군인들은 아이들의 집을 번듯하게 꾸러주기 위한 전두를 벌리었다. 부뚜막도 새로 쌓아주고 구들도 다시 놓아주었으며 방안벽에는 새 도배 종이도 발라주었다. 부엌의 벽에 라일도 산뜻하게 붙여주고 방바닥에는 문양고운 페타도 깔아주었다. 출입문과 창문도 새것으로 달아주고 가구들의 도색도 다시 하였다. 집안이 일신되자 군관 오철명, 김정철, 리용철 동무들이 비롯한 군인들은 아이들 정겨운 애조를 불렀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이들이 좋아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내딛었다. 차정길동무와 군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청초고급중학교로 향했다. 그들은 비애우는 마을사람들의 눈앞에 눈물겹게 안겨졌다. 밤에 잤는 차정길동무의 군복이, 군인들은 최은미에게 절절히 당부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학부모가 되었으니 이 애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조국의 기둥강대로 훌륭히 키우라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

독자의 편지

이런 교육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었다.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었다.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었다.

선군혁명과 더불어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홀스카이민군 전통협회는 경축집회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연구위원회와 베니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에서는 강연회가, 기내공화국 해군연합협대사령부와 나이제리아라고스국립대학에서는 영화상회기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집 회 장 에 는 위대 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처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홀스카이민군 전통협회 위원장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세 계 내 가 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게 대한 언급과 또 한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인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음을 통하여 세계는 반체제에서 편견편승하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기동, 주력군으로 위용 떨치는 조선인민군 나라의 정치사상적 지평을 백으로 다지는 데 기여하고있음을 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더욱 높고 있는 것 같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밤에 배우한림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조선인민군과 선군혁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승리하고 영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우아라 까르야》는 4월 22일 《선군혁명과 더불어 빛나는 80여성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선군혁명가들을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무력이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전후 미래의 거둬들이는 전쟁도발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리고 나라의 안건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1일 이 부대를 찾으시며 전투동원태세를 보여주시고 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단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고 그들과 다정히 귀속말도 하시는 강령은 동지의 모습은 한없이 자로로운 어머니, 조선의 위대한 현열연대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품목을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도 러친 《김정은 열사유위》의 구호는 결코 이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은 해피이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결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하신 조국의 사회주의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위력을 찬양하며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 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 테레즈베르그에서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나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벨닌신문 《연도이 년전》 4월 25일 밤에 배우한림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조선인민군과 선군혁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승리하고 영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우아라 까르야》는 4월 22일 《선군혁명과 더불어 빛나는 80여성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선군혁명가들을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무력이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전후 미래의 거둬들이는 전쟁도발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리고 나라의 안건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1일 이 부대를 찾으시며 전투동원태세를 보여주시고 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단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고 그들과 다정히 귀속말도 하시는 강령은 동지의 모습은 한없이 자로로운 어머니, 조선의 위대한 현열연대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품목을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도 러친 《김정은 열사유위》의 구호는 결코 이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은 해피이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결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하신 조국의 사회주의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위력을 찬양하며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 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 테레즈베르그에서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나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우아라 까르야》는 4월 22일 《선군혁명과 더불어 빛나는 80여성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선군혁명가들을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무력이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전후 미래의 거둬들이는 전쟁도발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리고 나라의 안건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1일 이 부대를 찾으시며 전투동원태세를 보여주시고 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단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고 그들과 다정히 귀속말도 하시는 강령은 동지의 모습은 한없이 자로로운 어머니, 조선의 위대한 현열연대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품목을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도 러친 《김정은 열사유위》의 구호는 결코 이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은 해피이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결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하신 조국의 사회주의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위력을 찬양하며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 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 테레즈베르그에서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나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군사적패권을 쥐려는 어리석은 망상

영미간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한유일동맹 등 아시아지역을 팽이처럼 돌아쳤다. 그가 들린 곳에는 남조선도 포함되어있었다. 이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팽이처럼 회전 행성운동으로 화약대가 짝 들어찬 남조선에 굳이 대결의 행적을 남긴다는 무엇때문인가.

오바마는 남조선행각기간에 호전적인 언동을 적지 않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심상치 않은것은 《동맹수호를 위해 군사력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니 워니 하고 뽕수설한것이다.

오바마의 이 폭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다를바 없는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근 70년간 추구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로골적이고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를 통해 오바마는 남조선행각을 강행한 자기의 검은 속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어떻게 해서나 유지하려 할까지 실행해보자면 조선에 대한 《동맹관계수호》를 운운한것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잠재적수출물 전체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정책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관계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이다.

관절된 미국의 힘의 정책은 더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급해맞은 오바마가 이번엔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군의 전선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한다, 남조선피해를 끊어준다며 미시민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다. 어쩌나 《동맹국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 폭언까지 늘어놓는것은 우연한치 않다. 이것은 미국이 시험대에 올라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고 생산시키려고 최후박막을 얹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군사시력이 떨어든 상태에서 북측이양심론을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든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유엔을 악용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추악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후후무한것이다.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와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데 전전긍긍하고있는 오바마행정은 선제공격으로 그 무언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바마의 행각에 앞서 이미 남조선피해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한 핵선

제타격계획인 《맞출형역제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벌여놓았으며 거기서 공공연히 《평양점령》을 가상한 위협천만만 불장난을 감행하였다. 우리의 전략군은 응당한 자위적조치로서 피사일발사흔편을 진행하여 적들의 기를 보기 좋게 꺾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일본과 남조선을 싸다니며 우리의 불거피한 자위적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보다 강도높은 《제제》와 《박박》, 《군사력사용물사》에 대해 떠돌아다녔다. 핵무기개발은 나갈수록 더 고립되게 될것이라는니 워니 하면서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함없음뿐더러 우리 제도를 함으로 진보하려는 야망을 실행하기 시키려한다는것이 명백한 이상 그에 대치한 우리의 대응방식은 불분명했다.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겠다. 오바마가 이번 행각기간에 남조선에 대한 《동맹관계수호》를 운운한것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잠재적수출물 전체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정책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관계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이다.

관절된 미국의 힘의 정책은 더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급해맞은 오바마가 이번엔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군의 전선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한다, 남조선피해를 끊어준다며 미시민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다. 어쩌나 《동맹국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 폭언까지 늘어놓는것은 우연한치 않다. 이것은 미국이 시험대에 올라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고 생산시키려고 최후박막을 얹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군사시력이 떨어든 상태에서 북측이양심론을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든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유엔을 악용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추악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후후무한것이다.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와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데 전전긍긍하고있는 오바마행정은 선제공격으로 그 무언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바마의 행각에 앞서 이미 남조선피해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한 핵선

제타격계획인 《맞출형역제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벌여놓았으며 거기서 공공연히 《평양점령》을 가상한 위협천만만 불장난을 감행하였다. 우리의 전략군은 응당한 자위적조치로서 피사일발사흔편을 진행하여 적들의 기를 보기 좋게 꺾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일본과 남조선을 싸다니며 우리의 불거피한 자위적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보다 강도높은 《제제》와 《박박》, 《군사력사용물사》에 대해 떠돌아다녔다. 핵무기개발은 나갈수록 더 고립되게 될것이라는니 워니 하면서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함없음뿐더러 우리 제도를 함으로 진보하려는 야망을 실행하기 시키려한다는것이 명백한 이상 그에 대치한 우리의 대응방식은 불분명했다.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겠다. 오바마가 이번 행각기간에 남조선에 대한 《동맹관계수호》를 운운한것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잠재적수출물 전체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정책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관계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이다.

관절된 미국의 힘의 정책은 더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급해맞은 오바마가 이번엔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군의 전선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한다, 남조선피해를 끊어준다며 미시민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다. 어쩌나 《동맹국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 폭언까지 늘어놓는것은 우연한치 않다. 이것은 미국이 시험대에 올라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고 생산시키려고 최후박막을 얹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군사시력이 떨어든 상태에서 북측이양심론을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든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유엔을 악용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추악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후후무한것이다.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와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데 전전긍긍하고있는 오바마행정은 선제공격으로 그 무언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바마의 행각에 앞서 이미 남조선피해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한 핵선

제타격계획인 《맞출형역제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벌여놓았으며 거기서 공공연히 《평양점령》을 가상한 위협천만만 불장난을 감행하였다. 우리의 전략군은 응당한 자위적조치로서 피사일발사흔편을 진행하여 적들의 기를 보기 좋게 꺾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일본과 남조선을 싸다니며 우리의 불거피한 자위적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보다 강도높은 《제제》와 《박박》, 《군사력사용물사》에 대해 떠돌아다녔다. 핵무기개발은 나갈수록 더 고립되게 될것이라는니 워니 하면서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함없음뿐더러 우리 제도를 함으로 진보하려는 야망을 실행하기 시키려한다는것이 명백한 이상 그에 대치한 우리의 대응방식은 불분명했다.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겠다. 오바마가 이번 행각기간에 남조선에 대한 《동맹관계수호》를 운운한것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잠재적수출물 전체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정책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관계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이다.

관절된 미국의 힘의 정책은 더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급해맞은 오바마가 이번엔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군의 전선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한다, 남조선피해를 끊어준다며 미시민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다. 어쩌나 《동맹국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 폭언까지 늘어놓는것은 우연한치 않다. 이것은 미국이 시험대에 올라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고 생산시키려고 최후박막을 얹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군사시력이 떨어든 상태에서 북측이양심론을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든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유엔을 악용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추악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후후무한것이다.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와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강화되는데 전전긍긍하고있는 오바마행정은 선제공격으로 그 무언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바마의 행각에 앞서 이미 남조선피해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한 핵선

주제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주제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4월 24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제사상연구부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회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전국위원회 지

도부를 새로 선거하였다. 위원장 유하 기예씨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하시키신 주제사상은 오늘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널리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열마전엔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게 주제사상을 구현된 인민의 탁월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하면서 그는 주제사상의

년차총회 진행

주제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4월 24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제사상연구부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회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전국위원회 지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이란이슬람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니가 4월 30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지역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을 이룩해나갈 때 혁명들은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요성 강조

이란의 위력은 인민의 힘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혁명강들이 순도 20%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갖은 책동을 다하였지만 이란이 끝끝내 이 기술을 보유한대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농촌친화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특히 수확자원을 리용한 자치구의 전력생산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3만 8 400명의 농촌주민들의 전기문제가 해결되었다. 올해에는 12만 7 000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전 블라디보스토크에 공업생산특별경제지대를 내놓을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6월 15일경에 이 도시에 특별경제지대가 창설되게 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지대의 생산허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계획들을 자금을 보충하게 된다. 한편 로씨야가 4월 28일 운란로코트 《브르문—M》을 띄웠었다. 바이코르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란로코트에는 로씨야중계 위성 《루스—5B》와 가짜소문관위성 《프라스트—3》로 구성되어있었다. 로씨야중계 위성은 2006—2016년 평행우주계획에 따라 제작된 《루스—6》과 《루스—7》의 시범 위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대 배웠습니다

이란에서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1개월동안에 현유를 제외한 제품수출액이 지난해 이란년도의 같은 달에 비해 10.4%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단편

최근에 미국의 한 언론기관이 흥미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60%가 중요한 국가적문제들과 관련하여 현 집권자인 오바마가 자기들을 속이고있으며 거짓말로 시간을 보낸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실패의 하나가 바로 2012년에 리비아 미군기지주재 미공병대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이 나라 주제 미국대사가 죽은 사건이 발생한 오바마가 그에 대해 태도행위라고 말한것이다. 미국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것이 다. 아예그 아니라 그 사건은 테

실패한 거짓말 정치

로행위가 아니라 반이슬람교적인 영화를 제작병영한 미국에 대한 일반인민들의 보복행위라는것이 증명되었다.

현행 미국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자는 없다. 특히 대통령은 협박의 능수가 되어야 할뿐 아니라 거짓말정치의 기만성을 감출줄 아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해동안 국민을 제쳐있고 속이고 행하였지만 오바마의 거짓말정치는 끝내 등장한다. 대중이 승리한다는 로보합계책안이라는것도 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부자들의 배를 불리워주기 위한 홀탕미끼

외세의 내정간섭 배격

이란대통령 미셸 술레이미가 2일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외세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국외리용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그 무슨 《민주주의권리》를 운운하면서 간섭하는것을 정부 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평화적핵관리 지지

니카라과의 부상 싸뮤엘 팜도 로스베스가 4월 28일 이란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관리를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그는 이란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특대형과거범죄를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를 의곡하며 미화보식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열마전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진자에서 무리로 물러가 참배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번 참배에는 1989년에 가장 많은 일본의 정객들이 참가하였다. 머구기 언급한것은 그들이 저들의 야스쿠니진자참배를 정당화하며 여론화한것이다. 참배에 참가한 일본정객들은 전일본과 교류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한편 일본의 야스쿠니진자에서 지난 4월 19일 현내에서의 미군기지에 행하는 주일들의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오기나와의 앞날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당국과 미국정부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기지의 현내시설을 용납하지 않을 림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규탄배격받는 미국

세계 각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에서 반마약투쟁에 대해 떠드는것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주둔을 확대하고 자기 나라에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전부 하려는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꾸바의 무성이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정부가 꾸바를 《테러리즘국가》명단에 포함하여 성명은 꾸바가 테러리스트라는 은신처로 된적이 없으며 자기 나라에 대한 테러행위를 비호조장시키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방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작성된 그러한 명단에서 꾸바를 당장 삭제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이 회의무성 대변인이 지난 4월 19일 이라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해외자선단체 소유물을 매각하기로 한 미시반당국의 그릇된 판결을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련방계관소가 뉴욕에 있는 이란의 자선단체와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

이대 배웠습니다